

부서명 | 전시기획팀 담당자

연락처 | ☎052-276-0131

##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- 『Antaeus』 창작스튜디오131 기획전 - 2025. 7. 24.(목)-8. 27.(수) /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 작은미술관 -

○ 창작스튜디오131의 기획전시 시2선 - 『Antaeus』가 7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울산 남구 장생포에 위치한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 작은미술관에서 무료로 개최된다. 이번 전시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안타이오스(Antaeus)에서 모티프를 얻어 상실과 균열 속에서도 회복되는 생명력과 회복력에 주목한다.

○ 김민혜 작가는 오랫동안 ‘끊어질 듯 이어지는 선’을 작업의 주제로 삼아왔다. 이번 전시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에 매달린 밧줄에서 영감을 받은 선(線)의 이미지로, 흔들림과 진동, 균열과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을 시각화했다. 부서지고 깎인 선들은 오히려 새로운 틈을 만들어내며, 그 틈은 초록의 새싹처럼 생명을 틔운다.

○ 특히 ‘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’라는 전시 기획 의도에 맞춰 플로리스트 이나영과 협업해 자연 요소와 식물로 전시장을 구성했다. 생명력 넘치는 식물과 유기적인 설치 작품과 어우러져 자연과 회복, 재생의 메시지를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한다.

○ 작가는 땅을 인간 내면의 심층에 비유하며, 『Antaeus』를 통해 무너짐과 회복, 단절과 연결이 반복되는 인간 내면의 파동을 탐색한다. 흩어진 감각이 다시 이어지며 생성되는 새로운 흐름은 치유와 재생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.

○ 전시 개막 이튿날인 7월 25일(금) 저녁 6시에는 ‘음악과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’가 열렸다. 김민혜 작가와 사회자 한혜리, 플로리스트 이나영, 싱어송라이터 천우진이 함께 참여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.

○ 시2선 - 『Antaeus』는 선이 멈추지 않고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, 흠에 닿을수록 단단해지는 존재의 서사, 그리고 균열의 틈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가능성을 조명한다. 전시는 치유와 재생의 흐름 속에서 삶의 균열을 직시하고 다시 나아가갈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.

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7. 28.

---